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스런 전망을 자랑하는 해남 두륜산의 겨울 설경. 겨울여행의 매력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번 겨울여행주간에 마련됐다. 특히 겨울여행길에 만나는 멋진 경관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면 경품을 주는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제공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서 ‘뜨겁닭’ 먹고, 땅끝마을서 소원 빌기

(해남)

14일부터 겨울여행주간…먹거리·트레킹 등 다양
강원 올림피로드투어·남해 어촌마을 체험도 운영



‘춘천에서 화끈하게 매운 닭갈비 먹고, 평창 윈터 페스티벌에 갈까. 아니면 부산 서면에서 돼지국밥 먹고 게릴라 버스투어를 즐길까.’

신년을 맞아 겨울 나들이를 생각한다면 14일부터 시작하는 겨울여행주간의 프로그램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겨울여행주간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이 함께 진행하고, 비수기인 겨울여행 활성화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겨울 스포츠 붐업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스키, 트레킹 등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아웃도어 액티비티부터 설 연휴 귀성객 맞춤형 이벤트, 먹방투어, 혼행(혼자 여행) 등 최근 여행 트렌드를 가미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이 이번 겨울주간의 특징이다.

●게릴라 버스와 전통시장 먹방투어(부산), 어촌마을 체험도

부산은 상대적으로 겨울 기온이 따뜻한 특징을 살려 요즘 겨울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적이다. 이번 겨울여행

주간에는 ‘모락모락(慕樂模樂) 부산 겨울이야기’라는 테마의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부산 여행길이 편하도록 수도권과 부산을 연결하는 시티투어버스 ‘게릴라버스’를 운영한다.

가장시장의 대게, 서면시장의 돼지국밥, 부평깡통시장의 어묵, 유부주머니, 국제시장의 싸앗호떡과 비빔당면,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 등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낭만적인 겨울바다에서 풍등 날리기 등의 새해 소망 기원 이벤트도 열린다.

남해 문항마을 굴 따기, 울산 기성마을 홍게피자 만들기, 포항 신창2리 해초비누 만들기 등 겨울철에 맞출 수 있는 별미와 체험이 복합된 어촌마을 체험 프로그램도 겨울여행주간에 운영한다.

지역사업체와 결합된 관광드래에서는 경기 가평 연천, 강원 강릉 홍천, 충남 홍성, 전남 곡성 구례 여수, 경북 봉화 안동 울진, 경남 남해 등 겨울철에 가족여행으로 좋은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전국 공공립 박물관, 국립생태원, 미술관, 과학관에서는 겨울방학맞이 프로그램과 함께 여행주간 특별행사를 연다. 이번 겨울여행주간은 설연휴(1.27~30)가 포함됐다. 귀성객을 위해 경남 하동 최창판데, 경북 안동 하회마을, 충남 서산 해미읍성 등 전국 14개 지역 23개 주요 관광지에서 설맞이 민속행사 한마당이 열린다.

●뜨겁닭투어, 빨간국물투어…새롭게 느끼는 강원 구석구석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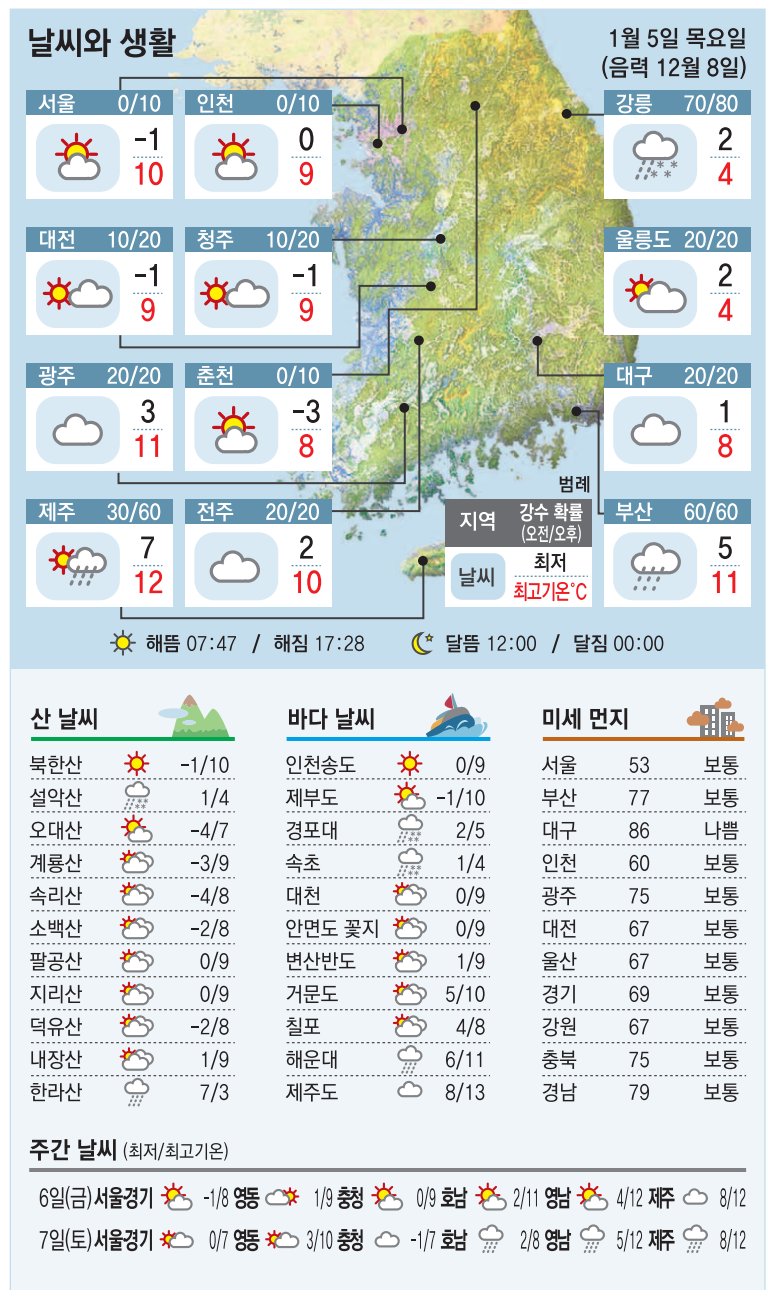
겨울 관광의 메카는 역시 뛰어난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강원도다.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은 ‘하태태! 강원도겨울 열정여행’이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를 연상시키는 뜨겁고(Hot) 빨간(Red) 음식을 활용한 이벤트가 눈길을 끈다. 춘천 닭갈비를 비롯해 속초 만석닭강정 닭새우, 홍천 해물닭볶이, 화천 외도리탕, 원주 일미통닭, 영월 일미닭강정 등 강원지역 명물 닭요리와 시티투어가 결합된 ‘뜨겁닭투어’가 있다. 횡성 한우국밥, 양구 메기매운탕, 동해 곰치탕 등이 겨울 추위를 녹일 뜨거운 국물이 어우러진 ‘빨간국물투어’도 함께 진행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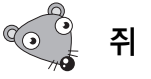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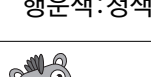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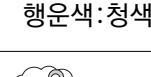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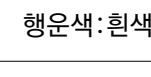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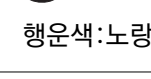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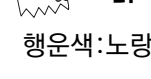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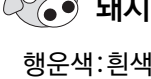
우선 평창 알펜시아에서는 발광다이오드(LED) 장미 1만 송이로 꾸민 ‘하이트로즈 가든’이 마련된다. 코레일과 함께 평창윈터페스티벌, 알펜시아 스키경기장, 동계올림픽 체험관, 전통시장 등을 기차로 방문하는 ‘올림피로드투어’ 상품도 있다. 이밖에 화천 산천어축제, 춘천 로맨틱페스티벌, 홍천강 썰매축제, 인제 빙어축제 등 겨울철 강원지역의 다양한 축제도 기차여행을 통해 즐길 수 있다.

김재필 기자 oldfield@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5일(목요일) 음력:12월 8일

 쥐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며, 결실의 탐을 쌓는 운기이다. 경륜이 탁월하여 자신의 재능 부문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길방:서
 소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취침 시 서북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상속받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운기이다. 길방:북
 토끼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노력과 정성과 운의 결실이 있는 날이다. 여유 있게 조용히 물러서서 노력하게 실속을 차리는 것이 좋다. 느긋한 기다림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길방:북
 용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발전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차근차근 앞날을 개척하라. 현재는 고독하나 어느 날 갑자기 뜰 것이다. 길방:서
 뱀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쾌청, 환한 하루, 운세: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 하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도하라. 길방:동
 말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어두운 밤길에 달빛이 나타나 격이다. 주위환경의 변화로 복권에 당첨되거나 상속이나 목돈이 들어오는 황재수가 있는 날이다. 열심히 움직여야 하는 날이다. 길방:동
 양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조용히 관망하라.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괴로움이 쌓이기 쉬운 때이다. 외로워지고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짓고 싶어진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길방:중앙
 닭 행운색: 노랑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성공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홍운의 교차시적이다.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얹는 편이 좋다. 길방:중앙
 개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해, 번개, 갈등, 운세: 마음속에 갈등이나 변민이 따르니 변화나 변동 상황에서 자제하여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하다. 감정을 자제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이 대처법이다. 길방:서
 돼지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인을 원망하며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자칫 음주 가무로 금전을 낭비할 수 있다. 길방:서
 재운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2,3,7,8,(4,9)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 소,뱀,닭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호랑이,말,개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대표전화 02 2020 0114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www.sportsdonga.com	
편집부	02 2020 1032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우)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편집인 이성춘	스포츠1부 02 2020 1041	산업경제부 02 2020 1060	2008년 3월 3일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광고국장 이승욱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2008년 3월 24일 창간	
인쇄 동아일보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